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7, Vol. 7, No. 2, pp. 1~18

우리 나라 영재교육의 과제와 발전방안

이 영 덕/(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I. 영재교육 효능화의 필요성

21세기를 불과 3년정도 앞두고 있는 오늘날 정보화시대, 두뇌 자원시대, 멀티미디어의 급속한 발달과 이용의 생활화, 창의력이 요구되는 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할 생존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영재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 세계는 그 동안 인구밀도, 지리적 조건, 군사력, 경제력에 의해서 비교우위가 결정되던 시대로부터 인간에 의해 즉 두뇌력, 知力, 창의력, 정보화에 의해서 비교우위가 결정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우수한 두뇌를 지원, 확보하는 능력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적 성패가 결정된다. 숙련된 노동력과 고급 두뇌, 원천 기술력, 정보화의 수준만이 경쟁에서 장기적인 우위를 유지시켜 주는 힘이 된다는 것이 많은 미래학자들의 합의된 주장이다.

이러한 미래 대비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영재교육 관련 지원체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위상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최근에 국가 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는 95년 기준으로 각 국가의 절대 기술개발력을 비교한 바 있는데, 미국이 1백이라면 일본은 56, 독일은 40, 한국은 4.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래불감증 증후군으로 알려진

이러한 우리 나라의 기술개발력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기감마저 갖게 된다.

중국에서는 1991년에 「전국 863계획공작회의」가 열렸고 전국에서 300여명의 고급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그 계획의 이름이 “863 계획”이었다는 이유는 그 당시 최고 실력자 등소평에게 1986년 3월에 4명의 중국 과학원 위원들이 연명으로 보낸 편지 때문이었다. 4명의 학자들이 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83년 3월 미국은 스타워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유럽은 유레카 계획을 세웠으며 일본도 과학기술 입국 계획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틀 뒤인 3월 5일에 등소평은 당과 국무원 관련 부서에 이 편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내면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한 결단을 내리기를 건의하였다. 중국의 국운을 방향 짓는 원대한 첨단기술 발전계획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학자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우면서 또 부럽게 생각된다. 중국 정부의 야심에 찬 적극적인 뒷받침과 중국의 대학수준을 미국의 하버드, MIT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애국심과 소명감을 갖고 있는 엘리트 과학자에 의해 중국의 과학흥국은 활력 있게 추진되고 있다.

91년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에는 2천명의 일본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교환교수, 연구원, 기술 연수생의 이름으로 선진기술을 배우려고 파견되어 있다는 것인데 일본인들이 전략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출한 분야는 핵물리학-우주항공-미생물-의학-수학 분야이다. 최근 들어서 이 분야에서의 프랑스 과학 비밀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접근해 보려는 일본학자들과 정부의 접근을 한사코 저지하려는 프랑스 당국 사이에 일종의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로서는 미국 전역의 대학과 국책·사설 연구소들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미국 과학기술의 진수를 사실상 빨아먹은 미국의 아픈 경험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즉 프랑스에서 개발한 기술이 결국 돈대준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장악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무역·경제·기술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즉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명제 하에 벌써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의 승자는 물론 과학, 기술, 경영분야에서 얼마나 탁월한 고급두뇌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반성해 보자.

미국경제 활성화의 기수이며 현재 실리콘 벨리에서 각광받고 있는 정보산업전문 기업군 사장의 90%는 모두 전문가 출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수능고사에서 고득점자 대다수가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전산학 등 기초과학은 외면하고 법대, 상대, 의대 선호 현상, 그리고 과학영재 육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가 대학에 빨리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전망해보면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두뇌 양성, 확보, 활용에 대한 대책이 너무도 불충분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긴다.

극심한 불경기 때문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취업난이 도래했는데 전공 구분없이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 채용박람회장에는 하루에 4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는 반면 과학 한국을 선도할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원 모집에는 2천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현실은 뜻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한다.

위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서의 사회적 국가적 요청이라는 면에서 높은 수준의 영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생각해 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최대한의 자기실현을 위한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측면에서 영재교육 효능화의 당위성을 논해야 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의 필요를 이야기할 때에도 사회적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주체이고 목적인 인간의 완성, 인간의 자아실현이라는 인간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 현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재교육의 당위성과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효능성 제고의 필요를 인간가능성의 최대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 가능성의 최대한의 실현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대심리학이 발견해준 전제들을 재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인간이 타고난 성장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만일에 우리의 발육과 성장과정에서 만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보다 적절하였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크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생활환경이 지적 성장 조건에 호적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지적으로 더 발달했을 것이며, 창의적인 삶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온 사회적, 심리적 환경이 적절하였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성숙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당연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굉장한 성장 가능성을 타고났으면서도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데 대한 비판적 반성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제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 속에는 스스로 자라고자 하는 내적 충동(innate urge to grow)을 동시에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모든 유기체는 그의 신체적 성장과 건강을 촉진하기 위

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신체적 필요를 통해 내적 성장력을 발휘한다. 지적 성장을 위해서는 호기심과 아는데 대한 기쁨이 강한 지적 성장력으로 작용한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강한 욕구(drive)는 유기체의 내적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사상(事象)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강한 충동 혹은 지향으로 나타난다. 사회적·도덕적 성숙을 위한 내적 성장력은 사회적 소속감과 안정을 지향하며 또한 양심의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가설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인간의 내적 성장력을 그 사람의 성장과 학습의 기본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교육은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더 많은 실증적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라고자 하는 내적 힘이 계속 자극되고 도전되는 삶과 학습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도달해보지 못한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자, “더 나은 교육의 탐구”, 1991에서 발췌)

세 번째로 영재교육 효능성 제고의 필요는 현존 영재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온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영재교육은 아직 초기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영재교육을 요구하는 강한 압력 하에서 서둘러 보니 합의된 철학이 분명하지 않고, 치밀한 연구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과 프로그램에 따르다 보니 그 결과는 낮은 효율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초등학생들의 과학·수학 실력이 세계 1.2위를 차지했다는 국제 공인기록이 발표되었다. 국제교육성취도 평가학회(IEA)가 지난 5년간 45개국 초·중등 1.2학년생 5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인만큼 그 신뢰도를 믿을만 하다.

그러나 이 평가결과를 보고서 우리는 반가워할 수만 없는 착잡한 생각에 빠진다. 과연 우리 초·중등 교육이 잘 되어서 이런 결실을 본 것인가 아니면 어려서부터 자녀를 속셈학원에 보내는 부모의 교육열 탓인가. 또 어릴 적에는 수학, 과학 실력이 이처럼 월등했는데 입시전쟁, 입시지옥을 겪으면서 고학년에 올라가며 형편없는 수학, 과학 바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말인가? 우리 나라 학생들이 하급학년에서는 수학점수가 높으나 고학년 그리고 대학, 대학원에 가면서 실력이 저하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있다. 그것은 수학이 논리적인 과목이고 창의력과 자율적 탐구능력을 요하는 과목인데 초기에는 기존의 공식들을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창의적 탐구를 요구하는 대학원 수준에 가서는 기초가 잘못되어 중도탈락하는 이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박사과정에 가면 우리 나라 학생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정평이 되어 있다.

앞서 말한대로 수학이나 과학은 창의력, 탐구력,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과이다. 그러나 우리

의 수학·과학 교육은 결코 이런 원리에 충실한 교육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과학은 실험실습보다는 암기 위주였고 수학은 오선지 선다형 문답풀이로 일관해 왔다. 수학의 기본원리보다는 공식을 외우고 주어진 문제의 답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주력해 왔다. 현미경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험실습 기자재 태부족인 교육현실에서 과학교육 세계 1.2위를 차지했다면 그것이 다분히 암기를 기초로 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그리 기뻐할 일이 못된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교육체제를 바로잡아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과학입국의 길을 여느냐 하는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영재교육을 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능고등학교들이 각 시·도마다 경쟁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시설과 교사자질,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서 일반 고등학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특수고등학교들은 그 특수고등학교들이 갖추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수학교로서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인문 분야의 영재를 기른다고 과학영재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그마저 대학입시 준비학교로 변질되어 있지 않은가? 영재교육원리의 초보만이라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현재 우리 나라의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예술고등학교까지도 제 구실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가 힘들다. 영재교육의 효능을 진실로 바랄진대 일대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후속되는 토론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영재 개념에 관한 논의

본래 영재는 영어로 gifted 또는 talented로 표시하며, 그 뜻은 천부의 재능 또는 은사를 부여받은 자를 지칭하여 왔다.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영재성(giftedness)과 재능(talent)의 용어를 동의미로 혼용해서(G/T) 쓰지만 Gagné는 자신의 지각력이 돋보이는 논문에서 이 용어의 의미를 구분했다. 영재성(giftedness)은 여러 가지 (인)지적인 성취를 말하며~주로 학구(문)적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나 명성~재능(talent)은 예술·운동·기능적 분야와 비인지적 능력의 성취(수행)를 말한다 것이다.

하여간 Gagné는 영재성이나 재능은 발현(표명)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촉매(catalysts)에 의

해 증대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육방식(환경), 교육, 생활방식, 시대정신, 출생순위, 사회, 가정에서 장려(옹호)되는 가치, 노력, 기회 요인, 등이 촉매의 내용일 수 있다.

심리학은 과거에 영혼(soul)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지만 지금은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다. 즉 심리학은 행동과 정신과정(mental process)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과학이다. 따라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gifted와 talented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경험적 행동적인 연구를 통해서 영재의 개념을 정립하여 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재능의 우수함은 아동 스스로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며 우선적으로 물려받았던 환경적으로 육성되었건간에 그 아동에게 혜택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 두 낱말이 지니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멀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우수아의 수준을 Terman은 전체 인구의 1%정도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인간 재능은 타고난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기보다는 타고난 재능 요인과 그 성장과정에서 만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되어 오면서 탁월한 재능의 종류도 증가하였으며 탁월한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의 수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nzulli는 인구의 15~20%가 영재 부류에 속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인간의 성장 가능성의 최대한 실현을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일반의 목표로 삼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교육조건만 구비된다면 종전의 제한된 교육조건 하에서 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영재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다는 가설을 포기하지 않는다.

영재교육이든 일반교육이든 그 지향하는 바 목표와 방향이 공통적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 가능성의 최대한으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면 별도의 특수목적 학교(예: 과학고교, 예술고교)에서의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의 성장 발달 가능성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기대하고 노력하기보다는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편화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잠재능력이 육성될 수 있게 하고 국가, 사회적인 수요·공급 조건에 따라 등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ler(1982)는 예외 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목표를 옹호했는데, “영재를 위한 최선의 교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영재의 평가에 있어서 “종합적 능력에서 뛰어난 사람과 특수 영역에서의 능력의 뛰어난을 나타내는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연구의 추세이다. 금년도부터 서울대학은 종래의 전교과 성적이 평균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만을 입학시키는 대신에 어느 특정분야에서 탁월성이 엿보이는~그러나 다른 교과성적은 별로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도 들어오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학의 새로운 학생선발 기준은 새로운 영재성 평가 기준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재아가 누구이며, 누가 어떤 재능의 범주에 속하는가, 그 증거와 결과는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과학적인 식별방법이 요구된다. 영재성 발휘에 확산적 사고의 중요성을 발견한 바 있는 Guilford와 같은 지능연구의 전문가들은 인간 지력의 구조모형론에서 인간의 능력을 무려 180개나 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 Gardner(1989)는 7개의 중다지능론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영재성을 단일능력으로 보아선 안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Sternberg(1985)는 영재성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접근 노력을 심리측정 견해와 정보처리견해로 구분해서 해석했다.

심리측정 견해에 의하면 지적 영재성은 잠재적 정신능력을 양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잠재적 정신능력들은 대체로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식별된다. 예컨대, 영재 아동들은 일반 지능의 수준에서 또는 언어이해, 추리나 공간 시각화와 같은 주요 정신 능력의 수준에서 평재 아동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처리 접근은 주로 심리측정 상의 접근의 옹호자들이 지적수행을 구성하는 과정들을 명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감지한 반동으로 야기되었다. 그러나, 정보처리 접근의 옹호자들은 적어도 최근까지는 영재성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해서 거의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지만 Sternberg는 정보처리 접근의 관점에서 영재들은 정보처리 기술을 발휘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질·양적으로 더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래서 영재들은 장기기억(LM)으로부터 사물의 이름이나 부호를 인출(引出)하는데 평재보다 더 신속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인간 지능의 삼위일체 이론에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영재는 특수하고 폭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비범한 지성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 재능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건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전과 환경결정론의 주장들이 오랫동안 심리학계의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어왔지만 근래에 와서는 인간의 재능은 유전과 환경간의 함수작용의 결과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Tannenbaum(1983)은 영재에 대하여 소위 심리학적 정의를 제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영재는 “인간의 도덕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심미적 생활을 고양하는 활동의 영역에서 훌륭한 성취자, 새로운 착상의 창출자가 될 잠재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이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착상의 창출자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Tannenbaum은 영재란 지식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과 착상의 창출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착상의 창출에 기여하는 요인들에는 일반적 능력, 특수한 능력, 비지적 능력, 환경요인, 그리고 기회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한 능력의 성장, 발현에는 학교 영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영재성이 다방면에서 발휘되어 인간 생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재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육성에 필요한 환경조건에 관해 좀더 생각해 보자.

전문가들(Mackinnon, 1978, Bloom, 1985)의 연구에 의하면, 영재성의 발달과 육성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조건들 중에는 1) 그 집안에서 중요시되는 가치와 지적, 문화적 노력, 2) 아동의 영재성 또는 특수성이 그 집안의 가치와 흥미와 맞아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격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3) 아동의 출생순위, 4) 각 발달 단계에서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 5) 그림 그리기, 수학, 과학 또는 음악에 종일 매달리는 과제 집착력, 연습(수련)에 투자하는 노력, 6) 의무감이자 습관에 의해서 즉 타율에 의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기꺼이 자아관여를 하는 것, 7) 피카소나 요한 슈트라우스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 가족의 헌신적이고도 희생적인 개발, 육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 우리 나라의 장 한나 양이나, 정 명훈씨의 경우가 여기에 열거된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재능 있는 운동가, 음악가, 화가의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성공하도록 탁월성을 인정받도록, 과업을 지속적으로 해 가도록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영재아동의 부모들은 어떤 활동 영역에 있어서나 성취의 가치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성취를 육성하는 태도와 행위를 형성하고 자녀가 재능영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도록 이끌며, 능력이 있어 보이는 영역에서 참여와 성취를 이룩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시간과 참여를 관리한다는 것이 이 방면의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이다.

Bloom(1982)의 재능 발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재능발달에 있어서 주요한 발달단계에서 개인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가족, 선발된 교사, 때로는 동료집단의 매우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천재는 환경과 관계없이 나타난다고 보았으나 Bloom의 연구결과는 유리한 환경조건이 사람들을 높은 수준의 재능발달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재자신의 다음과 같은 특성도 재능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 기꺼이 노력함 • 경쟁심 • 재능영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생각(idea)과정을 빨리 배우는 학습 속도 등이다.

예술, 운동, 수학자와 연구 신경학자와 같은 인지영역의 영재를 대상으로 한 Bloom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인물의 부모들은 자신의 가치, 욕망을 자녀에게 거의 강요하지 않으며 자녀가 해보기 원하는 것을 해 보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부모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적인 양육태도가 특징적이라는 증거도 많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는 부모와 도덕적 표준이 높은 부모 하에서 영재아들이 많이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흥미롭다. 이런 연구결과는 영재성의 개발육성에 따른 부모의 몫 또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찍이 Edison이 말한 것처럼 영재자신의 노력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상에서 참조한 것과 같은 연구들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만약에 적합한 동기가 아동 개인에게 있고, 그것이 길러지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영재들의 필요와 발달단계에 민감한 학습기회가 특정개인에게 제시되고, 그리고 재능을 필요한 개발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시간의 여유와 적합한 학습의 대책(교육 프로그램)이 주어질 수 만 있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그 사회에서 공인되는 재능이나 능력의 대부분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풍요한 환경(enriched environment)이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재성이나 재능(G/T)이 육성될 수 있고 반대로 그러한 환경이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면 영재성이나 재능이 소멸될 수 있다는 환경과 선천적 능력간의 상호작용·통합적 원리가 영재교육 실제에서도 기본 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영재교육의 효율성 대 비효율성 평가도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유대인이 가정교육과 육아방법에 관해 연구하여 온 건국대학의 유태영 교수는 유대인 가정에서 행해지는 철저한 육아방법과 교육적 노력이 유대인들의 재능발달과 큰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하는 책의 이름을 아예 “천재는 없다”로 단정한 일에서 어린이의 양육과정에서 영재성이 형성된다는 주장을 하는 Bloom교수를 위시한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영재의 특성이나 육성 방법에 관한 원리들을 논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일반화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음을 아울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권하는 뜻에서 Buhler의 연구를 소개해 둔다.

영재의 능력의 양적, 질적 차이는 어려서부터 나타난다. Sharlotte Buhler(1956)는 2명의 우수아동을 비교하였다. IQ 150의 A는 5학년 남자 어린이며 생물과목을 중 2에 가서 수업하고 반에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게 하는 Enrichment 교육제도하에서 장차 자기보다 열등한 지능의 소유자들과 잘 지내면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IQ 170의 B는 유치원에서부터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업활동에 참여하지를 않고 자주 선생님에게 “지금 몇 시에

요?”라고 묻고서는 다음 활동까지 몇 분 몇 초 남았다는 계산을 즉시 하곤 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도 학교공부는 전혀 안하고 꼴찌이다. 교사는 B가 음악시간에 배운 노래를 시간이 끝나자 피아노로 가서 화음을 잘 만들어서 재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어머니와 상담한다.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자 B는 식사시간도 잊어버리고 피아노에 몰두한다. 5학년에서는 세계지도들을 모으고 도시와 고장들의 특징에 관계된 원리를 스스로 알아내었고 학교공부는 거의 하지 않는다. 숙고 끝에 중 2로 월반시켰더니 이미 덩치가 커진 친구들이 아직 몸이 작은 B를 축구팀에 뽑아주지 않고 그 대신 코치를 하라고 한다. B는 1912년부터 1950년까지의 모든 프로축구 팀과 대학 축구팀의 작전을 다 연구하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권하지만 친구들은 힘으로 하지 그런 작전들이 왜 필요하냐고 아예 들으려고도 않는다. Buhler의 결론은 IQ 170 이상의 우수아들은 mainstreaming이 불가능하며 좋은 교사를 만날 수 있다면 격리되어 양육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세계적으로 공헌하는 일들을 성취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대개는 그런 고도의 재능은 한낱 평범한 시민으로, 또는 바보취급을 받을 만큼의 무능한 둔재로 인생을 끝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렇게 탁월한 수준의 영재를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식별방법과 또 식별되었다라도 그런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나 학교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uhler가 예시한 이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 1) 영재교육이 모든 영재아동에게 전적으로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데 그 원인과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 2) 영재학생의 특성과 욕구가 동질적이 아니다.
- 3) 영재교육이나 아동에 대한 지원체제 운영상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하고 그 지원체제는 영재 개인별로, 영재 학생 집단별로, 개별학교 단위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 4) 영재교육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대비, 점검,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영재자신들의 진가가 무시되어 영재자신들이 “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라고 탄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 5) Buhler가 예시한 사례에서 나타난 바처럼 기존의 학교체제가 영재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인식되면 모든 교과 영역의 기본 교육과정을 재구조화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향상된·탁월한 정신능력 때문에 평재위주의 기존의 교육과정의 자극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3. 현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반성

현재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 나라에서 시도되고, 추진하고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몇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형태는 진급 및 진학에 있어서의 월반 및 속진제이고, 둘째는 영재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동질집단 편성제이며, 셋째 형태는 이질집단, 즉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모두 섞인 혼성 학급집단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우수학생들이 그들의 높은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심화프로그램(Enrichment Program)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첫째 형태인 월반 및 속진제는 이들 용어가 이미 시사하고 있듯이 정상보다 더 빨리 진급하게 되는 제도 혹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월반제는 문자 그대로 학년을 뛰어 넘게 하는 방법이다.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무작정 월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진급시키는 대신 6학년으로 월반시킬 때 큰 무리가 없겠는지 또는 지적 발달상황과 학력상의 준비도나 나아가 상급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사회적 성숙도 등의 특정평가와 함께 학생본인과 부모의 의사 및 담임 교사의 관찰 등을 종합해서 월반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교육과정상으로 계열성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월반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월반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속진제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속진제에서는 교육과정운영을 우수학생에 맞게 개별화하고 학생의 학습진도를 교육과정계열에 따라 맞춤으로서 능력에 따라 무리없이 학년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위 조기졸업제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기졸업제는 기존학제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4년 과정을 3년정도로 끝낼 수 있는 학생이 천명당 2~3% 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무학년제를 통해 능력에 맞추어 초등학교 6년 과정을 4~5년에 끝낼 수 있는 길이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별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과목이 수면제 및 상급정치(advanced placement)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리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수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혹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 고등학교 내에서 또는 인접 대학에서 대학과정의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외국어 등을 이수하여 학점을 저축했다가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는 4년 과정을 2년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16세 학생이 수학으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는가하면, 21세~23세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끝낼 수 있는 배려는 여러 명문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은 학생의 특성을 존중하는 제도의 유연성이다. 제도와 학교 경영의 초점이 학생의 '저해받지 않는 발달'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인구가 증가되고 학급이 과밀해지고 시설이나 학습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운영을 개인특성에 맞춘다는 것이 힘들고 재정투입의 대폭적인 증가가 요구된다는 현실적인 제약요인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학생들의 '저해받지 않는 발달'을 중요시하는 교육이념에 입각한 결단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제도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형태인 동질집단 편성제는 앞서도 언급한대로 영재들만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구상이다. 이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영재들만 선발하여 독립된 영재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특수학교제도와 동일학교 내에서 우수한 학생만으로 별개의 학급을 편성하는 방식이 있다. 영재들만을 전국에서 선발하여 특정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하는 특수영재학교의 예로서는 미국의 The Bronx High School of Science, The Stuyvesant High School 등이 있고 소련이나 불란서, 인도 등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학교의 특성은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학교에서는 다른 일반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이 제공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서 교원진도 우수하고 교육방법도 영재들에게 맞도록 고안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이 그 예가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 특수 고등학교들은 영재 교육의 본질적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 반면 학생들에게 그릇된 우월감과 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열등의식의 조장으로 비교육적 반교육적인 폐단만 조성한다. 학생선발 방법도 영재 찾아내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교육과정과 교원구성도 다른 일반학교와 다를 바 없으며, 진도 및 방법도 다른 학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특수학급 편성제에는 교과목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우수반을 편성하여 모든 학교생활을 비슷한 수준의 학생끼리 같이 하는 방법과 교과목별로 선택케 하여 자연히 동질학생들이 교과목에 따라 수업집단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학생은 외국어에서는 가장 앞선 수준의 과정을 선택하겠지만 수학에서는 하위수준 과정에, 그리고 기타교육은 대다수 학생과 섞여서 수업받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동질집단 편성제도는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끼리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진행상의 편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주는 자기 능력의식 등으로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러

나 학생들의 병적인 우월의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의 조화라는 면에서, 적지 않은 비판도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의미에서 교과목별로 동질집단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동일학교 내에서 소위 우수한 열등반식으로 편성하는 방식은 그것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굳이 우수학생들만을 따로 선택하여 영재교육을 하여야 한다면 오히려 완전히 별개의 특수학교로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근래에 높아지고 있다.

셋째 형태인 심화 혹은 Enrichment 프로그램은 월반제나 동질집단 편성제의 결함을 피하면서 우수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자는 구상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다. 이 Enrichment 프로그램은 1950년대 및 60년대에 월반제나 동질집단 편성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어 있을 때 환영받은 하나의 ‘안전한 대안’이기도 하다. 인간사회는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조화롭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영재들만을 격리해서 따로 자라게 한다면 그들이 사회의 건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넓은 인간관계의 경험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서 영재들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일은 혼성집단 속에서 함께 자라나게 하면서 영재들의 학습을 “Enrich”해 주는 일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내놓은 대안이다. Enrichment 프로그램에서는 영재아들의 학습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과제나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일, 우수 학생으로 하여금 분단별로 같은 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조력자의 역할을 맡기는 일들이 흔히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나라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아주 드물게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Enrichment 프로그램을 비록 안전한 대안이라는 하나 효과가 지극히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급한 정책결정자나 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설명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의 세 가지 접근방법의 요소들은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제 4의 보다 종합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기도 한다. 다만 그러한 종합적인 접근 속에 어떤 경우는 속진제가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동질학급 편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Enrichment에 정책적 역점을 더 두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들은 The Bronx High School of Science 같은 특수 영재학교는 속진제와 동질반 편성에 역점이 더 주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학교별로는 Enrichment 프로그램을 강조하게 하여 두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영재발굴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재를 찾아내고 특별 장학금 공여, 특수지도 위탁(예를 들어 특정 학생을 골라 권위 있는 과학자나 예술가에게 특별지도를 받게 하는 등), 특수학교에의 입학, 추천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에 와서는 급진전된 multimedia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교수 개별화로 많은 개인차들을 극복 할 수

있는 Enrichment 프로그램의 효능성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상과 같은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은 출생 이후부터 시작되는 육아 과정에서의 영재성 발아와 그 기초적 육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 동안의 교육적 투입을 거의 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교육 체제 밖에서 어린이들이 만나는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세력의 활용을 도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효능 높은 영재교육을 위한 총체적 접근에서 큰 결함을 가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 체제를 훨씬 넘어서는 삶의 전과정을 통한 총체적 교육접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4. 영재교육 효능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재정립

급격한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세계화시대를 맞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무한 경쟁의 도전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가 탁월한 고급두뇌의 양성과 활용에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효능 높은 영재교육의 실현은 시각을 다투는 국가적 필요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이 필요를 외면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급한 국가적 요청에 밀려서 수립되는 교육개혁시도는 언제나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용두사미로 끝나곤 한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입시제도 개혁노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한 인가니 교육의 상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제도, 저런 방법을 써 보았지만 별 효과 없이 부작용만 커져 가고 있다. 영재교육 위한 국가적 필요에 대응한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영재교육체제 마련 노력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수 학교를 만드는 노력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수학교를 만드는 등 소리만 요란했지 “좋은 것이면 나도 하겠다.”는 나쁜 풍조 속에 우후죽순적으로 정련되지 못한 특수학교가 늘어났다. 영재교육의 기본 원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상한 학교, 뽀내기 좋아하는 부모들의 자랑거리 정도로 속화되어 버린 학교들로 인해서 그릇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조성하는 비인간적 비교육적 처사가 무반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물론 특수 학교교육으로 인해 격려되고 속히 자라나는 우수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영재교육의 실질적인 효능을 올릴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창안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우리들의 사고의 구도 자체를 의미 있는 체계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영재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 시작하여 생산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창안을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많은 변인들과, 인간 발달과 학습에 적용되어야 할 다양한 원리들을 망라하는 총체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영재르 “천부”라는 단일 요인에 제한하지 않고 타고난 성향과 환경 및 양육 과정에 작용하는 제세력과의 함수관계에서 형성되어 가는 인간 재능으로 정의할 것을 권한다. 그러므로 이미 있는 극소수의 높은 성취자를 찾아내기보다는 아직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잠재된 재능을 자극하고 발아시키고 육성, 격려하는 육아 과정에서 생성되는 재능을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는 재능찾기 프로그램(talent identification program)의 창안이 요망된다. 고정된 전제위에서 만들어진 검사로 쉽게 영재를 찾아내어 특수교육을 시킨다는 소극적인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일은 유태인들에게서 보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중요성이다.

앞서 언급했던 Bloom교수 등 육아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능개발에 크게 영향을 주는 문화 환경, 부모자녀관계, 가정의 가치관, 부모나 어른들이 지니는 도덕적 통합성, 자녀에 대한 일찍부터의 존경과 자율성 여부 등등의 제세력에 대한 깊은 연구와 그 원리들에 일치한 가정만들기, 이것들을 촉진시키는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성숙 등 얼핏보아 영재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같이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인간 발달과 성장을 돕는 풍부한 토양을 만드는 일이 영재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고안된 프로그램들의 운영과 병행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우선 다급한 생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영재를 찾아내어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속히 영재육성을 해야겠다는 성급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교육적 문화와 교육 방법에 따라서는 더 탁월한 영재를 더 많이 키워 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그들이 가능성만큼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는 종합적 교육체제 구축을 영재교육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반학생들의 정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학습하게 할 수 없는 Sharlotte Buhler의 case에서 보는 매우 예외적인 재능잠재아의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예외적인 사람들을 위한 개별화를 배려하는 융통성을 가진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창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효능 높은 영재교육체제 구상에서 절대로 소홀히 되어서는 안되는 기본 원리 2개를 특별히 강조해 두고자 한다. 그 첫째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의 원리이다. 인간이 타고난 가능성은 신체적인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성장, 사회적 성장, 도덕적 성장, 종교적 성장 등으로 설명의 편의상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측면이 성장이 다른 측면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이기에

어느 측면도 따로 떨어져서 성장해 가지 않는다. 건강하고 건강한 신체적 성장이 지적 발달에도 정서적 과정에도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건강에 관한 지식으로 건강습관을 기르도록 돕고, 정서적 건강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촉진 또는 저해요인이 된다. 지적 성장의 측면도 성장과정에서 얻는 영양이 인간의 지능발달에 큰 영향을 주면, 특히 정서적 안정과 인간관계와 도덕적 행위에서 얻는 고양된 자아는 지적 성장을 위해 없으면 안되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 간단한 예만 들었지만 인간유기체의 모든 측면에서의 최적한 성장과 모든 측면에서의 성자의 함수로 나타나는 유기체의 총체적 성장발달에 우리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OA라고 유기체연령의 개념이 나오게 된 근거에 유의하여야 한다. 앞서 Bloom교수 등의 연구에서도 지적된대로 영재교육에서의 가치와 도덕성의 중요성은 전인적 성장이라는 원리에 맞게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

두 번째 원리는 영재의 목적의식과 관련된다. 무엇을 위한 영재이냐의 질문에 관계된다.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영재는 자기개발을 할 것이면 그 개발된 영재를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냐 혹은 이웃과 공동체(민족, 인류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선의 추구를 위한 것인가의 선택이 중요하다. 물론 선택은 공동선의 추구에 맞추어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선과 의의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인격성장에 영재교육의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 그릇된 목표에 봉사하는 영재성의 발휘가 자기자신도 포함하는 민족과 인류전체를 재난으로 몰아간 증거들을 우리는 악과 불의로 엮어진 인간재난의 역사에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영재성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개발한 것이라고 해도 선과 의를 추구하는 삶의 목표의식을 인격의 핵에 구축해 주는 일에 실패한다면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필자가 여기 결론 부분에서 강조한 전인적 발달원리와 목적의식의 육성과 관련하여 유태인의 가정과 그들의 종교적 신앙생활의 편모를 간단한 예화형식으로 여기에 기재하므로써 본고를 끝내기로 한다.

시카고 대학은 교수 절반 이상이 유대계 미국인이라고 한다. 인문계나 자연계뿐만 아니라, 예능계 등 모든 영역에서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영재들은 많이 배출하고 있다. 세계적인 정치인도 유대인 중에 많으며, 록펠러 같은 큰 재벌들도 유대인 중에 많다는 것이다. 미국에 가보면 보스톤이나, 기타 유명 대학들이 있는 도시의 가장 좋다는 학교군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다. 한국인 이민자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 살기 원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유대인들이 저토록 우수한 인재들을 저토록 많이 배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한가지 크게 다른 점이 저들에게 있다.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 교육이 철저한가를 나타내는 경전의 말을 인용해 본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웨는 오직 하나인 야웨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웨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너는 또 그것을 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제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신명기 6장 4-9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금요일 저녁은 언제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 가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유대교 교육의 기본단위가 가족이다. 필자는 시카고 대학에서 교육과정 연구를 할 때 이스라엘에서 온 교육과정 전문가팀과 일년 동안 같이 지내는 가운데 그들의 집에 금요일에 초대된 일이 있다. 그들의 저녁식사 전의 예배는 대단히 경건하였고, 아주 어린 자녀들까지 엄숙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매일 저녁 Torah를 읽어 주는 부모 밑에서 야웨와 그의 율법을 몸에 익히면서 자라난다. 이러한 종교교육 이외에 어린이들은 시간을 쪼개 가면서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악기들을 배운다. 음악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야웨 찬양이 유대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야웨는 저들의 창조주이며, 생명의 주인이며, 우주의 섭리자이며, 가정에 사랑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정교한 악기로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라고 경전에 명령되어 있다. 또 하나의 유대교 핵심은 야웨를 의지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면 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야웨의 약속신앙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model은 다윗 왕이다. 그는 용맹스러운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야웨의 마음에 합당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시인이었고, 음악인이었고 그가 거문고를 타면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는 항상 시와 거문고로 야웨를 찬양하는 자였다. 작은 마을의 목동이었던 그를 야웨는 온 이스라엘이 왕을 삼으셨고, 그의 아들 Solomon의 지혜를 들으려고 열국의 왕들이 모여 들었다.

저들의 경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서와 시문학과 예언서로 되어 있다. 그 경전 전체를 통해서 Israel 민족은 Babylon, Percia, Greek, Roma 등 잠시 흥왕하였다가 곧 사라져간 나라들과

같지 않고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는 백성이 될 것이며 공의와 선으로 전 세계를 복되게 하는 지도자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야웨의 약속이 확고하게 제시되어 있다. 단, 그 조건은 야웨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일이며, 그 법도는 10계명으로 집약되는 600여개의 구체적 법이다. 10계명 중에서 4개 조항은 야웨만을 경배하고 다른 우상 즉, 물질이나 기타 영원성이 없는 가치를 숭상하지 말라는 명령이며, 6개 조항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째 계명을 시작하여 살인, 거짓, 탐심을 금하는 대인관계의 법이다. 그 모든 법도를 2개로 요약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교육으로 자라는 유대계 미국인 청년들은 1948년 Israel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조국의 전쟁터로 달려갔다. 저들에게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야웨가 언젠가는 2000년전에 전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다시 모을 것이며 언젠가는 또다시 David와 Solomon의 시대와 같이 지혜와 공의로 전세계를 이끌어 가는 대국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신념이 저들의 목표인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 저들은 하나가 되어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 저들은 열심히 교육을 받으면, 이를 위해서 저들은 재능을 키우고 있으며,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으며, 세계정상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